

중국, 원예산업 실태와 전망

중국은 세계 최대의 채소 및 과일 생산국이다. 특히 개혁개방이후 기술 발전을 기초로 하여 생산, 소비, 수출 등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생산, 수급전망, 수출입, 그리고 한중간 무역동향 등에 대하여 정리하고, 한국의 과제를 몇가지 제시한다.

1. 중국의 원예작물 생산동향

1.1. 채소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채소 생산면적과 재배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세계 최대의 채소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채소 재배면적은 1978년 333만 ha에서 2001년에는 1,640만ha로 5배 증가하여 연평균 10.0%의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곡물 재배면적은 연평균 0.7% 증가에 그치고 쌀은 매년 1.4%씩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채소의 수익성이 곡물보다 높기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의 채소면적은 세계의 1/3, 생산량은 무려 40%나 차지하고 있다.

채소 중 주요품목은 배추, 고추, 무, 오이, 토마토, 가지, 대파로 이들 7개 품목의 재배면적은 채소 전체의 53%, 생산량은 65%를 차지한다. 그 중 배추의 비중이 가장 높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전체의 13%, 20%를 점유하고 있다.

표 1 중국의 주요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2003)

품목	재배면적(천ha)			생산량(만톤)		
	중국	한국	비중(배)	중국	한국	비중(배)
배추	2,699	48	56.6	10,197	268	38.1
고추	1,309	74	17.7	2,820	19	148.4
무	1,219	35	34.8	3,881	156	24.9
오이	936	7	140.8	3,551	45	79.8
토마토	801	4	195.3	3,309	27	122.6
가지	706	1	744.7	2,119	3	644.3
대파	525	13	39.4	1,763	39	45.6
소계(7품목)	8,195	182	45.0	27,640	557	49.6

주: 고추는 대부분이 맵지 않고 큰 대고추이며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익도산 고추는 산둥성에서 일부 생산됨

중국의 채소 주산지인 동부의 황해와 인접한 지역으로 산둥성, 하남성, 광둥성은 중국의 3대 채소 생산지역이다. 특히 산둥성은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전국의 12%, 16%이고, 시설채소의 52%(48만ha)를 점하고 있는 중국 최고의 채소 생산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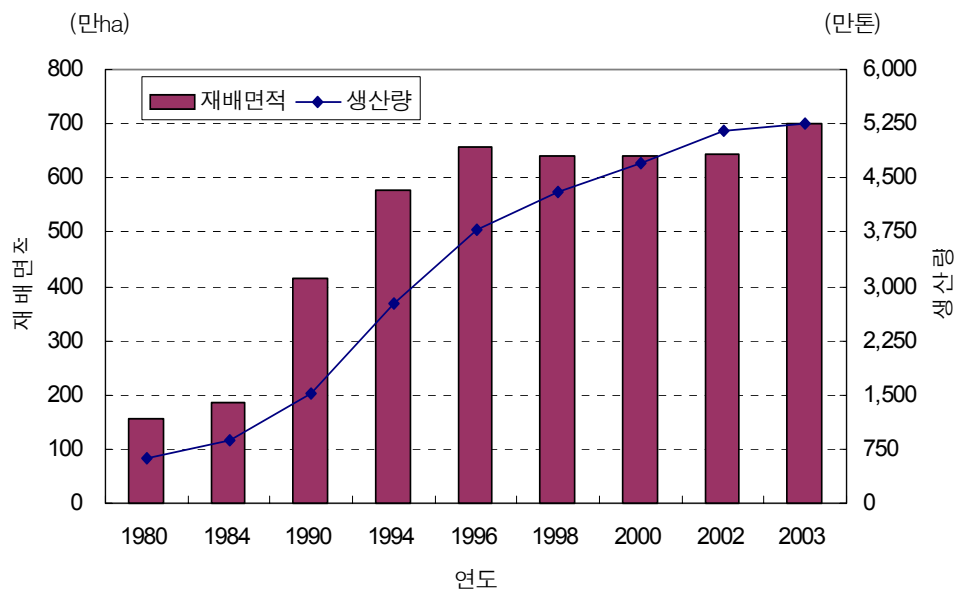
중국은 또한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비중은 고추 49%, 마늘 71%, 양파 30%이며 주로 산둥성, 강서성, 안휘성 등에서 생산된다. 특히 산둥성은 마늘, 양파 및 익도산 고추의 중국 내 최대 생산지이다.

시설채소는 비닐온실의 시설이 낙후되어 단위면적당 수량과 품질이 매우 낮다. 단위면적당 수량을 한국과 비교해 보면 오이 23%, 토마토 36%, 호박 44%, 딸기 51%, 가지 54% 정도이다.

1.2. 과일¹⁾

중국의 과일생산량은 1978년만 해도 세계 8위 수준이었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세계 1위로 부상하였다. 재배면적은 1980년 157만ha에서 2003년에는 700만ha로 4.5배 증가하였으며 세계 재배면적의 26%를 점유하고 있다. 생산량은 같은 기간 동안 625만톤에서 5,260만톤으로 8.4배 증가하였으며 세계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중국의 과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동향



품목별 재배면적은 사과, 감귤류, 복숭아, 배, 포도, 감 순으로 많으며 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계 1위이다. 생산량은 사과, 감귤류, 배, 포도 순으로 많으며 감귤류와 포도를 제외하고 모두 세계 1위이다.

1) 중국산 과일 및 과채류는 우리나라 식물검역법 상 수입금지 품목임.

표 2 중국의 주요 과일 재배면적과 생산량(2003)

구 분		세계	중국	비중(%) (중국/세계)	세계순위	한국	비교 (중국/한국)
재배면적 (만ha)	사과	567.5	208.1	36.7	1	2.6	79.5
	감귤류	731.6	138.8	19.0	1	2.6	52.9
	복숭아	211.9	131.3	61.9	1	1.6	84.2
	배	178.0	104.9	58.9	1	2.5	41.3
	포도	737.9	34.1	4.6	6	2.6	13.1
	감	34.8	28.3	81.1	1	2.9	9.7
생산량 (만톤)	사과	5,709	1,925	33.7	1	43	44.4
	감귤류	10,345	1,246	12.0	3	64	19.4
	복숭아	1,364	418	30.6	1	19	22.3
	배	1,712	943	55.1	1	39	24.4
	포도	6,189	456	7.4	5	39	10.8
	감	235	167	71.1	1	28	5.9

재배품종은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재래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1980년대 초반부터 외국의 우수품종을 도입해서 재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체 품종도 육종하고 있다. 사과는 후지 45%, 골든델리셔스 33%, 기타 22%이며, 배는 표주박 모양의 중국배가 주종이나 '90년대 중반부터 신고, 20세기, 황금배 등 일본 및 한국품종이 일부 도입·재배되고 있다. 감귤류는 제주감귤과 비슷한 온주감귤 및 번디쥬 감귤이 60%, 나머지는 오렌지와 기타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과일의 단위면적당 수량은 1980년에는 평균 10a당 2,666kg으로 매우 낮았으나 '90년 2,615kg, 2003년 4,482kg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기술이 낙후되어 수량은 평균 53% 수준이며 품질도 낮다. 과종별로 수량을 비교해 보면 사과 56%, 배 59%, 포도 82%, 복숭아 27%, 감귤 31%, 감 61%이다.

중국의 과일 주산지는 온대, 아열대, 열대 지역별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낙엽성 과일(사과, 배, 복숭아, 포도)은 북위 30도 이북의 온대 지방에서, 감귤과 같은 상록과일은 남부 지방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과종별로 보면 사과는 산둥성(31%), 섬서성(18%), 하남성(11%)에서 전체의 60%가 생산되고, 배는 하북성(32%), 산둥성(10%), 요령성(8%)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또한 포도는 신강성(18%), 산둥성(17%), 하북성(16%), 복숭아는 산둥성(23%), 하북성(19%), 호북성(8%), 감귤류는 절강성(24%), 복건성(18%), 호남성(17%)에서 주로 재배된다.

품질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모양, 크기, 색택이 일정하지 않고 당도도 약간 떨어진다. 그러나 최근 품종개량,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의 개선으로 품질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사과는 최근 봉지재배법의 도입으로 착색, 모양 등 외관이 향상되고 당도도 제고되고 있다. 배는 크기가 작고 표주박 모양의 중국배가 많이 재배되는데 당도는 약간 떨어지는 편이다. 최근에는 신고, 21세기, 황금배 등 한국 및 일본품종이 도입, 재배되고 있으나 한국산보다는 외관, 당도 등이 떨어진다²⁾. 감귤은 당도는 제주산보다 높으나 신맛과 과즙이 적어 씹는 맛이 떨어지며 외관과 색택이 제주산만 못하다.

2. 중국의 원예작물 수급 전망

중국의 채소 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채소 소비량은 2000년에 283kg에서 2015년에는 354kg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 소비량은 같은 기간 동안 3억 6,180만톤에서 5억 1,381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에는 과일을 잘라 먹으면 가정이 파탄된다는 미신이 있어 큰 과일보다는 작은 과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음.

채소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채소는 단위면적당 수익성이 타 작물보다 높고 기후 및 토질이 좋기 때문에 채소 생산은 2000년 4억2,398만톤에서 2015년에는 5억5,298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중국의 채소·과일 수급 전망(2005~2015)

단위: 만톤

구 분		2000	2005	2015
채소	총 수요량	36,180	40,835	51,381
	총 생산량	42,398	45,364	55,298
	잉여량	6,218	4,529	3,917
과일	총 수요량	5,503	6,751	8,713
	총 생산량	5,725	7,673	10,311
	잉여량	222	922	1,599

자료: 劉江主 編, “農產品供求總量平衡研究”, 「21世紀初中國農業發展戰略」, 중국농업출판사.

채소 수급상황을 비교해 보면 총 공급이 총 수요를 4천만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중국은 채소 수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과일도 경제성장과 소득증진으로 소비가 늘어나 2015년 과일소비는 2000년 대비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일생산도 수익성의 상대적 우위와 성목면적의 증가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이 소비를 초과함에 따라 과일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출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중국의 원예작물 무역 동향

3.1. 채소

중국의 신선채소 수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5년에 34만톤에 불과하던 수출량은 2002년에는 240만톤으로 연평균 12.2%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0.8억 달러에서 7.4억 달러로 연평균 14.0%씩 증가하였다.

표 4 중국 신선채소 수출동향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2
수출량(만톤)	34	54	81	139	240
금액(억달러)	0.8	1.7	4.8	4.9	7.4

성별 수출실적은 산동성 46%, 복건성 25%, 절강성 11%, 광둥성 10%로 산동성의 비중이 다른 정보다 월등히 높다. 수출 상대국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홍콩과 동남아에 국한되었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 러시아, 미국 등으로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채소수출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요인은 첫째, 채소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 하락의 대안으로 수출을 적극 추진하였고 둘째, 종자 및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되고 수출단지도 확대되었으며 셋째, 도로, 항만, 저온관리 시스템 등 수출기반시설의 대폭적인 확대에 따라 수출물류비용의 감소와 수출채소의 신선도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편 채소류 수입도 꾸준히 늘어나 수입액은 1994년 0.3억 달러에서 '96년 0.9억 달러, '99년에는 1.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채소류 수입은 연간 1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수출액의 10%에 불과하다. 주요 수입품목은 셀러리, 상추, 부로콜리 등으로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단정기에 공급된다.

3.2. 과일

중국의 과일수출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수출량은 90만톤으로 중국 과일생산량의 1.7%, 세계 교역량의 3%에 불과하며 수출액은 2억7천만 달러 수준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러시아 및 동남아(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이며 수출품목은 사과(55%, 금액기준), 배(22%), 감귤류(19%)이다.

표 5 중국의 과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만톤

품목	1998		1999		2000		2001		2002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사과	64.1	16.8	76.0	21.9	96.5	29.8	100.6	30.4	149.4	43.9
배	34.0	11.1	30.2	12.1	35.8	14.6	41.2	18.4	59.4	24.3
포도	0.1	0.03	0.2	0.04	0.2	0.08	0.3	0.07	2.3	0.6
복숭아	1.0	0.4	0.6	0.2	0.9	0.2	1.4	0.4	2.8	1.2
감귤	43.2	14.9	39.6	16.6	45.4	19.1	35.7	15.0	51.0	19.6
감	2.9	0.3	6.7	1.3	4.3	0.3	3.2	0.4	5.0	0.7
계	145.3	43.5	153.3	52.1	183.1	64.1	182.4	64.7	269.9	90.3

자료: KOTIS

한편 과일 수입량은 2002년 17.2만톤 (수출량의 19%), 수입액은 84백만\$ (수출액의 31%) 수준이다. 주요 수입품목은 사과, 포도, 감귤 등이며, 수입 물량의 대부분이 단경기인 11월~이듬해 5월까지 수입된다. 수입 대상국은 미국, 칠레, 뉴질랜드이며 한국, 일본으로부터 고품질 과일의 일부가 수입된다.

4 한·중간 원예작물 교역 현황

4.1. 대 중국 원예작물 수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원예작물(채소, 과일, 화훼류) 수출액은 2003년에 1,600만 달러이며 2000년 이후 수출실적이 연평균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훼류(난 및 분화류)의 수출은 최근 중국의 고소득층의 수요증가로 크게 신장하고 있으며 채소 및 과일의 수출은 일부 고급품목을 제외하고는 약간 침체 상태에 있다. 채소의 대 중국 수출액 절반 이상은 채소종자이며, 신선채소는 중국산에 비해 가격이 높아 수출실적이 미미하다.

표 6 대 중국 원예작물 수출 현황

단위: 천달러

구 분	1995	1998	2000	2001	2002	2003
원예작물 전체	1,425	2,593	7,527	8,705	11,261	16,124
채소류	1,132	1,168	3,831	3,468	4,838	4,427
- 채소종자	851	1,132	2,964	2,242	3,039	2,614
과일류	292	1,191	1,262	2,253	1,758	1,667
화훼류	1	234	2,434	2,984	4,665	10,03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2. 대 중국 채소 수입

대 중국 채소류 수입은 2000년대에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채소 수입액은 2000년에 7,74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1억 6,59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품목은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와 당근, 김치 등이다. 양념채소류는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신선·냉장 품목보다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1차 가공품목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7 대 중국 채소 수입 현황

단위: 톤

구 분	1995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11
고추	16,118	14,207	23,017	35,366	35,456	53,687	49,999
마늘	12,198	39,747	23,234	26,476	30,598	40,182	58,902
양파	14,330	12,960	20,015	11,462	12,424	90,342	40,005
당근	263	3,583	10,459	13,469	18,283	35,663	53,629
김치	1	10	473	393	1,042	28,707	66,343

주: 고추, 마늘은 1차 가공품을 신선품목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켰음

우리나라의 중국산 고추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3년에는 국내 고추작황이 부진하여 수입량이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고 2004년에도 비슷한 양이 수입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전부가 산동성에서 재배된 익도산 고추이다.

건고추는 고율관세(270%)임에도 색도와 매운맛이 양호해 수입이 늘고 있다. 건고추 수입량은 2000년에 6.8천톤에서 2003년에는 13.9천톤으로 2배나 증가하였다. 1차 가공품(저율관세, 10쪽 참조)은 2003년 전체 수입량의 74%(4만톤)를 점유하였고 그 중 기타소스(48%)와 냉동고추(17%)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마늘은 긴급수입제한조치(SG) 해제, 수출단가 하락 및 국내가격의 상승으로 2003년 수입량은 40천톤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는 2003년보다도 47%가 더 수입되었다. 특히 SG 해제 이후 저율관세품목인 냉동·초산조제마늘의 수입이 급증하였는데 이들 품목의 수입량은 2002년에 17천톤에서 2003년에는 29천톤으로 66%나 증가하였다. 2003년 수입량을 품목별로 보면 냉동·초산조제마늘이 71%, 신선·냉장마늘 23%, 건조마늘 6%이었다. 마늘은 2003년 11월 이후 국내 마늘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였다(전년동기 대비 89%).

그림 2 고추의 형태별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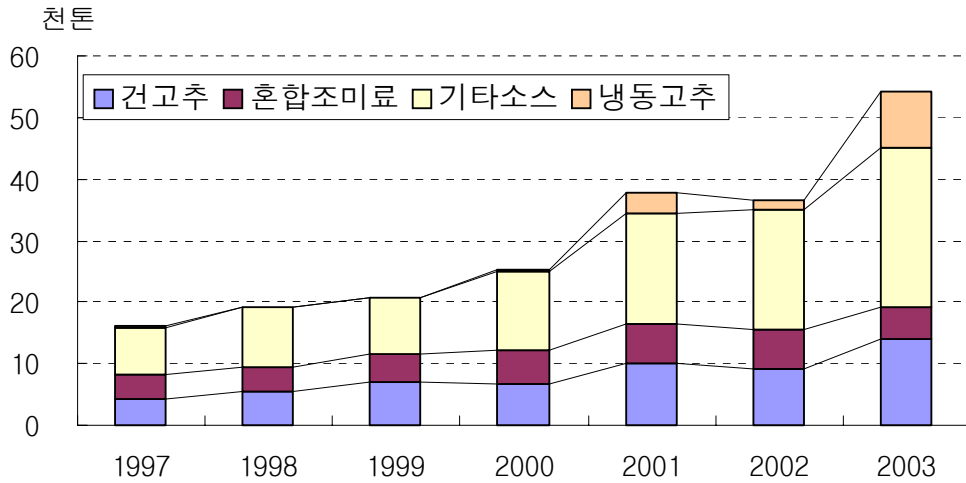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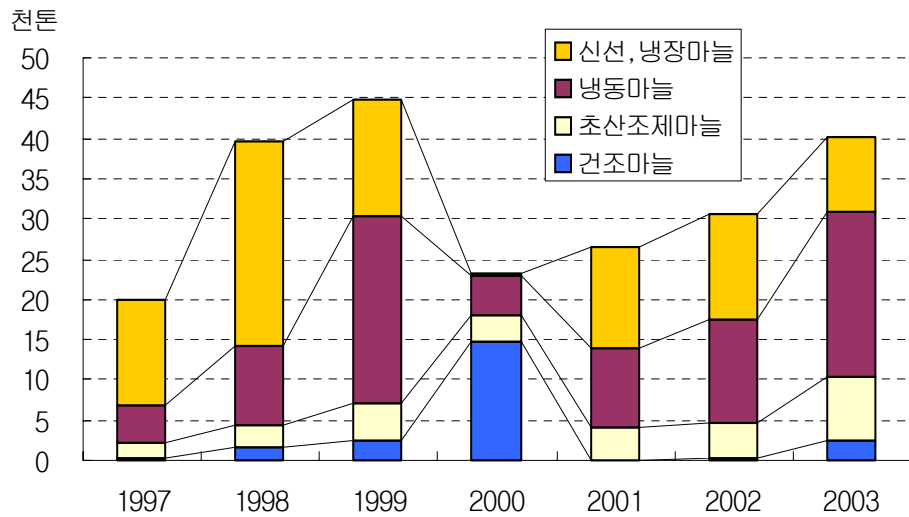


그림 3 마늘의 형태별 수입동향



양파와 당근도 2003년 국내 작황부진으로 국내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전년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양파는 2003년 수입량이 전년 대비 7.3배나 늘어났고 당근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 양파는 국내 생산량 증가로 수입량이 대폭 줄었으나 당근은 전년보다 50%가 더 늘어났다. 양파수입량의 84%는 신선양파인데 고율관세를 물면서 까지 수입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김치는 2002년 가을 이후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로 2002년에 1천톤에 불과하던 수입량이 2003년에는 무려 28.7천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는 2003년보다도 2.3배나 더 수입되었다. 이렇게 김치 수입이 급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중국의 김치생산량 증가: 중국의 김치공장 증가, 한국기업 중국 이전
- ② 수입김치의 국내유통망 확대로 요식업소 등 국내 고정수요처 증가
- ③ 배추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수출 물류 편이(부피, 변질, 검역 등)

특히 2004년 11~12월에는 국내배추 가격이 폭락하여 수입수요가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김치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4 김치와 배추의 월별 수입 동향 (2002.1~2004.2)



5. 한·중간 경쟁력과 교역전망

5.1. 가격경쟁력

한·중간 채소 현지 도매가격을 단순비교해 보면 한국은 중국에 비해 고추 5.7배, 마늘 11.6배, 양파 4.9배, 당근 9.3배나 높다. 그러나 중국 농산물 가격이 우리나라 도매시장에 상장되려면 관세 및 부대비용(통관, 국내운송, 이윤 등)이 추가되는데 주요 채소류의 관세와 MMA(2004년) 물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고추	마늘	양파	당근	김치
신선·냉장·건조		270.0	360.0	135.0	30.0	22.9
냉동·가공 및 기타 관련품목		27~54	27~30	27	-	-
MMA	물량	7,185	14,467	20,645	-	-
	관세	50	50	50	-	-

고추는 건고추, 냉동고추, 혼합조미료, 기타소스의 형태로 수입되는데 냉동고추는 국내 수입된 후 해동·건조되어 판매된다. 건고추 가격은 한국산 火乾보다 비싸지만 陽乾보다는 저렴하다. 그러나 한국산 화건과의 가격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양건과의 차이는 커지고 있어 중국산 건고추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산 냉동고추의 품질은 한국산 화건과 비슷하며, 가격은 한국산 화건의 60~85% 수준이어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다.

2005년도 우리나라 금년도 고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과 비슷하므로 작

황이 평년작을 유지한다면 국내 고추가격이 하락하여 중국산 건고추의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냉동고추와 기타소스는 선택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여 가공 및 요식업체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하며 앞으로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중국산 고추의 국내도매 가능가격

단위: 원/600g,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중국산	건고추(A)	5,767	5,217	5,025	6,400
	냉동고추(B)	2,879	2,321	3,900	4,000
한국산	양건(C)	5,996	5,391	6,124	7,939
	화건(D)	4,773	3,882	4,631	6,330
A/C		96.2	96.8	82.1	80.6
A/D		120.8	134.4	108.5	101.1
B/D		57.7	60.0	84.2	63.2

주: 중국산 도매가격은 CIF 가격+관세+부대비용+수입업자 이윤. 환율은 1,200원/\$ 적용

마늘은 신선·냉장, 냉동, 초산조제, 건조 마늘의 형태로 수입된다. 신선·냉장마늘은 관세율이 높아 중국산 신선·냉장마늘의 국내 도매원가는 2,500~3,000원/kg으로 국내산보다 경쟁력이 낮아 2003년까지는 MMA 이외의 민간수입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3년 11월 이후 국내 마늘가격이 상승하자 신선·냉장마늘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한국의 수입량 증가에 따라 중국의 산지가격도 상승하였는데 2003년 3월에 톤당 200달러이었던 마늘 가격은 2004년 3월에는 280달러로 전년대비 40% 상승하였다. 또한 2003년의 SARS 창궐로 중국에서도 마늘소비가 급증한 것도 중국 산지가격을 상승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냉동 및 초산조제 마늘은 국내 수입된 후 다대기 또는 장아찌 원료로 사용되는데 국내산 하품 가격의 1/2~1/3 수준에 불과하여 민간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마늘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중국산 마늘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냉장마늘은 경쟁력이 낮아 민간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냉동 및 초산조제 마늘은 저율관세로 수입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중국산 마늘의 국내도매 가능가격

단위: 원/kg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중국산	신선·냉장	2,629	2,602	3,046	2,826	2,539	2,721
	냉동	793	1,114	1,332	1,156	746	723
	초산조제	711	1,027	1,312	1,156	906	906
한국산	상품	2,130	1,532	1,633	2,052	2,142	3,132
	하품	1,591	1,215	1,365	1,535	1,648	2,506

주 : 1) 한국산 도매가격은 가락동 도매시장 上品 기준

2) 관세는 2004년(신선냉장 360%, 냉동 27%, 초산조제 30%)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관세 적용

중국산 양파의 국내 도매원가는 한국산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국내 작황이 부진한 해(2000, 2003년)의 경우는 중국산 가격이 국내산보다 8~25% 낮았다. 양파의 가격경쟁력은 국내와 중국의 양파 수급 여건에 따라 좌우되지만 중국산 양파의 수출원가 하락(재배면적 확대, 재배기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04년 국내 양파 생산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하여 2004~2005년 양파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수입당근은 대부분 대형 유통업체와 식자재 업체로 유통되는데 품질은 맛, 육질, 설탕, 크기 등에서 국내산보다 못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산 당근의 국내 도매원가는 390~480원/kg으로 국산 도매가격의 87% 미만이며 특히, 6~11월은 40% 내외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산 당근의 국내 수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경쟁력이 커지는 하반기를 중심으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중국산 양파의 국내도매 가능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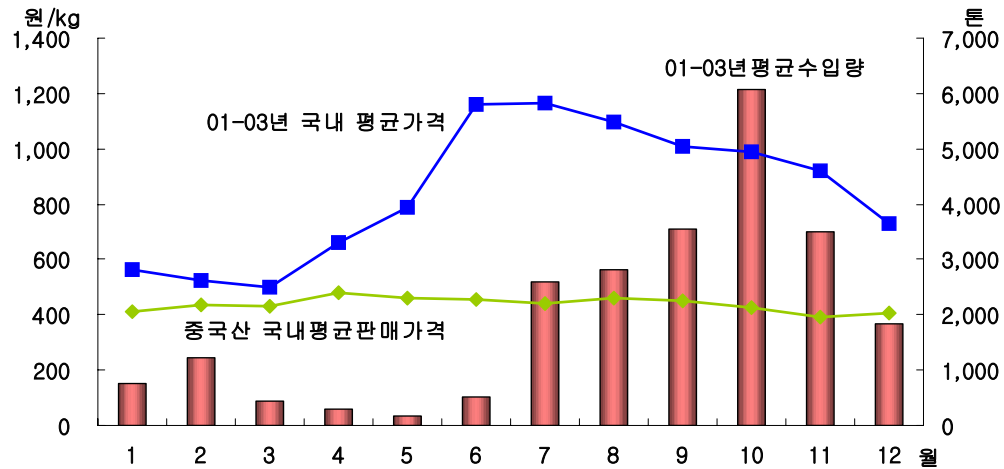
단위: 원/kg,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중국산(A)	468	758	720	735
한국산(B)	510	404	398	987
대비(A/B)	91.8	187.6	180.9	74.5

자료: 관세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중국산 수입김치의 평균 수입원가는 500원/kg 내외로 국내 평균가격 (1,500원/kg)의 1/3 수준이다. 품질은 한국산보다 떨어지나 요식업소에 납품 되어 국내산 배추·무의 수요를 크게 잠식하고 있다. 일본시장에서 우리 김치가 중국산 김치와 경합하고 있는데 품질은 한국산이 다소 우위이나 가격은 한국산이 30~70% 높다(한국산 400~500엔, 중국산 300엔/400g).

그림 5 중국산 당근의 국내 도매원가



우리나라 연간 배추김치 소비량(약 100만톤) 중 30~40%는 요식업소에서 소비하는데 그 중 20~30%를 중국산 김치가 점유한다면 연간 김치 수입 규모는 6~12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5.2. 품질경쟁력

중국은 최근 외국종자 도입, 자체 품종개량,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농산물 품질이 급속히 향상되어 품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농산물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양호하다. 그러나 잔류농약 등 안전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채소의 경우에는 품질이 매우 낮다.

중국 익도산 고추는 우리나라 품종과 똑같고, 줄기에 달린 채 자연건조되기 때문에 색택이 좋고 매운맛이 국산보다 덜하다. 건조과정에서 품질이 다소 떨어지나 수출용은 품질이 양호한 것만을 선별하여 수출하므로 품질이 좋다. 중국산 건고추의 품질은 국내산 양건과 화건의 중간, 냉동고추는 화건 중품 정도이다.

표 11 국내산과 중국산 고추의 품질 비교

구 분	색도 (캡산틴)	매운맛 (캡사이신, mg)	당분 함량 (%)
국산(양건)	15.4	118.1	25.5
중국산(익도산)	20.5	9.8	15.4

자료: 농협식품연구소, 2001

마늘은 종구를 2~3년 주기로 갱신하여 퇴화를 방지하고 비닐피복 재배를 실시하여 색택과 맛이 좋다. 수출용은 품질에 따라 상·중·하로 선별하여 용도에 맞게 가공 수출하는데 냉동, 냉장, 진공포장 등 선도유지 시설과 기술을 확보하여 수출시장에 양호한 상태의 마늘을 수출한다. 전반적으로 수출용 마늘의 품질은 우리나라 마늘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파는 일본의 양질종자 도입, 비닐피복 재배, 수확후 건조, 선별 등으로 품질이 개선되어 한국산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근은 적지적작, 신품종도입, 재배기술 향상 등으로 맛, 육질, 선택, 크기 등 품질이 전반적으로 국내산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되며 선별, 세척, 선도 유지 등을 철저히 하여 외관상 품질도 우수하다.

오이, 가지, 토마토, 딸기 등 시설채소는 온실시설, 재배기술 등이 낙후되어 식미, 선택, 상품율 등이 저조하고 온실 내 농약살포 등으로 안전성이 떨어진다. 중국의 시설채소는 대부분 난방 및 환경제어 시설이 없는 일광 온실, 단동온실에서 생산되어 품질제고에 한계가 있다.

5.3. 향후 한·중 교역 전망

전반적으로 보아 중국산 채소의 국내수입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의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 가격하락, 품질개선, 재배·수확후 관리 기술 발전, 수출물류 시설 및 비용절감 등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다. 둘째,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진흥 정책이다. 즉, 채소를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녹색식품 제도의 확대를 유기 및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의 재배지역 확대 잠재력이 매우 크다. 넷째, DDA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의 수입관세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며 중국과의 FTA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원예작물의 대 중국 수출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단경기를 중심으로 고품질 채소 및 과일을 연간 2억 달러 정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원예작물 재배시설 및 기술, 생산성, 품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의 고소득 소비자 계층은 우리나라의 고품질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품질 농산물 수출전략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과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향후 중국 농산물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검역문제가 해제된다면 중국산 과일 및 과채류의 수입이 급증하여 그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입정책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6.1. 식물검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에 관한 대응방안 강구

현재 중국의 과일 및 과채류는 지중해과실파리, 코드린나방, 빗자루병 등 식물검역법상 수입금지 병해충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국은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의 해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DDA 협상 타결 후에는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문제 해제 시 농업부문 피해액(2004~2015년)은 개도국 지위 유지 시 6조7천억원이며 선진국으로 분류될 때에는 8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그 중 과일류가 70~80%를 차지하는데 검역 해제시 피해가 클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감귤, 오이, 토마토 등이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해제요청을 해 올 경우 ‘병충해위험평가 → 병해충관리방안 협의 → 공동시험실시로 병해충 관리방안 검증 → 관련규정 제정 및 고시’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3~10년(평균 5년)이다. 따라서 중국의 병해충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 과학적인 검증, 유리한 협상대책, 해제시 피해계층, 대응방안 등을 지금부터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6.2. 관측 등 해외정보 수집체계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채소, 과일, 과채, 축산 등 26개 품목에 대한 관측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할 경우 국내 생산자료 만으로는 관측사업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등 주요 국가에 해외 모니터를 설치 설치하여 농산물 생산, 가격, 품질, 수출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에 20명, 칠레에 2명의 모니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이것을 연차별로 계속 확대하고 산동성에 관측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중국관련 연구를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조기경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농산물 수출과 그로 인한 국내피해가 심각할 경우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SG)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농업관련 기관을 통한 정보수집도 강화해야 한다. 정보의 질적 향상과 적시성, 지속성을 위해 북경 및 산동성 농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도 필요하다.

6.3. 수입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수입되는 신선 및 가공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독성물질, 세균 및 병해충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중국 산동성에 식물검역 출장소를 설치하여 사전검역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즉, 중국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에 한하여 사전검역을 실시하여 검역필증을 발행한다면 국내에서 검역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검역의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원산지표시제의 철저한 시행도 필요하다. 신선, 냉동, 건조 등 수입 형태별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실시하여 국내시장에서 국산과 수입산이 차별적으로 유통,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최종소비단

계에서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소매시장, 가공업체, 요식업체 등에서도 원산지 표기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도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모니터링(위반자 색출 및 처벌)이 미약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 관리 및 수입농산물의 국내유통 추적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통관과정에서 수입자별로 수입품목, 수입액, 단가, 대상국 등을 신고하게 하고 수입농산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DB화한다면 수입농산물의 이력(Traceability)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4. 한·중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통상마찰 대응능력 제고

국가별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하여 생산, 수출입에 대한 정보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의 실무자급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정보를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한다면 수출입량과 국내가격 통제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능력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역조정과 통상마찰 예방을 위한 고위급 무역분쟁 예방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마찰을 대비한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분쟁사례 수집 및 분석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도 육성해야 할 것이다.

6.5. 종자 유출관리 시스템 구축

최근 중국에서는 배추, 고추, 사과, 배 등 국내 종자를 도입하여 역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우량품종의 해외 유출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6.6. 국내 농산물생산이력제(Traceability) 구축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농산물생산이력제(Traceability)

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중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구현한다면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식품생산이력 국제규격을 제정하고 있어 농산물생산이력제는 농산물 수출 증진과 농산물 수입억제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오세익 seikoh@krei.re.kr 02-3299-42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